

전남대병원 새 병원 예타 막바지... 정부 통 큰 지원 '주목'

45년 낡은 병원... 1.1조원 규모 응급·중환자실·교육시설 확대 추진
윤 대통령 "수도권과 의료 격차 해소" 부산대병원 신축에 7천억 약속
정신 병원장 "서울·부산·광주 세 축 균형발전 위해 예타 통과 절실"

국립대병원 중 가장 낡은 전남대병원의 새 병원 건립 추진 여부가 임박하면서 지역민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25일 전남대병원과 광주시 등에 따르면 전남대병원 새 병원 건립사업인 '미래형 뉴 스마트병원 신축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가 막바지 단계에 돌입했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5일 부산대병원을 방문해 "의료개혁의 핵심은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의료서비스 접근권의 격차 해소"라며 병동 신축 비용 전액인 7000억 원을 지원하기로 약속함에 따라, 전남대병원 새 병원 예타 결과가 더욱 주목을 받고 있다.



전남대병원 새 병원 투시도

그동안 광주·전남은 대표적인 의료 소외지역이었던 만큼 전남대병원 새 병원 건립에도 정부의 통 큰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역내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전남대병원이 추진하는 새 병원 건립 계획은 애초 사업안에서 신축 규모는 줄이되, 응급·중환자실과 연구·교육시설을 대폭 확대하는 방향으로 진행된다. 기존안에서는 병원 1동, 2동, 3동, 5동, 6동(아린이병원), 제1주차장 등 크게 6개 건물을 철거하기로 했으나 현재는 6동을 존치해 5개 건물만 철거할 방침이다.

전남대병원 미래형 뉴 스마트병원 신축사업은 현재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받고 있다. 지난 해 2월부터 시작한 예타 조사는 총 4차례 질의 과정을 거치며 사업계획서가 변경되는 등 전남대병원은 모든 역량을 집중해 사력을 다하고 있다.

전남대병원이 지난 2022년 기재부의 예비타당성 대상사업 선정을 위해 제출한 사업계획서에서는 ▲1300병상 ▲연면적 27만㎡(8만1675평) ▲1조 2146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될 예정이었다. 이후 기재부의 예타 조사를 받고 있는 한국개발연구원(KDI)과 조사 과정에서 수정 제출된 최종 사업계획서에는 ▲1070병상 ▲24만㎡(7만2600평) ▲1조 1438억원으로 변경됐다. 병상 수를 줄이는 대신 임상실습·수련교육 등 교육시설과 기초 및 중개연구·바이오헬스산업 등 연구시설이 대폭 늘었다.

2단계에 걸쳐 신축할 새 병원은 '1단계'(동관 건물)는 오는 2030년까지 전남대의학동캠퍼스와 전남대 간호대학 부지에 900병상 규모로 신축건물을 완공한 후 주요 진료기능과 수술실, 권역응급센터 등 병원 대부분의 기능을 이전할 계획이다.

'2단계'(서관 건물)는 오는 2034년까지 1동·2동·3동·5동 및 제1주차장을 철거 후 해당 부지에 170병상 및 교육·연구시설, 첨단의료사업지원센터 등의 기능을 담은 건물을 신축해 개원한다.

새 병원은 ICT 기반 스마트병원으로 전환한 '미래병원의 모델'을 제시했다. 필수의료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응급실 병상을 확충(36~65병상)하고, 전체 중환자실을 1인 격리실화 및 증설(161→191병상)할

계획이다. ICT기반 원격진료자실도 구축해 지역 중환자 진료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수행한다는 그림이다. 특히 새 병원은 미래의료 대응을 위한 질환별 특성화센터 중심 진료로 전환하게 된다. 본원인 전남대병원에 조기암진료센터 신설 및 패스트 트랙 진료시스템 구축으로 환자 유출을 방지할 계획이다.

또 교육기능은 물론 연구기능과 공공의료의 기능을 강화해 거점 국립대병원으로서 지역 완결적 의료제공 체계를 확립하고 병원 중심 지역산업 활성화에 기여한다는 방침이다.

전남대병원 1동은 46년, 2동은 무려 55년이 넘는 등 새 병원이 들어설 기존 건물의 평균 사용기간이 45년을 넘었다. 1동은 전국 국립대병원의 주요 진료동 중 가장 오래됐다. 이에 따라 매년 시설 관련 수선비 및 리모델링 예산으로 매년 300억원이 편성되는 등 시설 노후화가 심해 구조적인 한계로 차세대 의료로 수행하기 어려운 환경이다.

전남대병원은 외래와 검사실, 병동과 수술실 등 모든 의료기능이 동별로 분산돼 있어 이동거리가 길고 복잡한 동선으로 환자들의 불편은 헤아 갈수록 가중되고 있다. 특히 중환자실 운영 비용은 전국 최상위권이지만 분산된 중환자실로 인해 환자 통합 관리에도 어려움이 많다.

이로 인해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건강수준 격차는 지속되고 있으며 각종 사망률 지표에서도 불균형이 계속되고 있다. 인구 10만명 당 치료가능 사망률(2019년 기준)은 서울이 36.36명에 불과하지만 광주 39.12명, 전남은 44.08명에 달한다. 뇌혈관질환 사망률(2019년 기준) 역시 서울은 33.6명, 광주 34.9명, 전남은 무려 71.2명에 이른다.

전남대병원 정신 병원장은 "현재 오래되고 낙후된 전남대병원 시설과 시스템으로 수도권과의 의료 서비스 격차를 줄일 수 없다"면서 "정부에서도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하고 있는 만큼 서울과 부산, 그리고 광주가 세 축으로 지역 균형 발전이 될 수 있게 예타 통과가 꼭 이뤄졌으면 하는 게 지역민들의 바람이다"고 밝혔다.

/이유빈 기자 lyb54@kwangju.co.kr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부산대병원을 방문, 수도권과 비수도권 의료서비스 격차 해소를 위해 병동 신축 비용 전액(7000억원)을 지원하기로 약속하면서 전남대병원 새 병원 건립 사업인 '미래형 뉴 스마트병원 신축사업'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대법, 노동자 월평균 근무일 '22일→20일' 변경

민사소송에서 배상금을 산정하는 주요 기준 중 하나인 '도시 일용근로자의 월평균 가동일수(근무일수)'가 22일에서 20일로 줄었다.

연간 공휴일이 늘고 근로자들의 월평균 근로일이 줄어드는 등 사회적·경제적 변화를 고려해 대법원이 21년 만에 기준을 변경한 것이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25일 근로복지공단이 삼성화재해상보험을 상대로 구상금 지급을 청구한 사건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면서 이같이 설명했다.

공단과 삼성화재는 2014년 경남 창원외 철거공사 현장에서 근로자들이 크레인에서 떨어져 숨

지거나 다친 사고와 관련해 소송을 벌였다.

공단은 다친 피해자에게 휴업급여·요양급여 등 3억5000만원을 지급한 뒤 크레인의 보험사인 삼성화재를 상대로 구상금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1심부터 대법원에 이르기까지 삼성화재의 손해배상 책임은 모두 인정됐다. 다만 구체적인 배상금을 따지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일일수입을 얼마로 볼 것인가가 쟁점이 됐다.

일일수입이란 사고로 인해 피해자에게 장해가 발생했을 때, 사고가 나지 않았다면 장래에 얻을 수 있었으리라고 기대할 수 있는 수입을 말한다.

/연합뉴스

의료개혁특위 출범... "국민·의료계·정부 개혁과제 논의"

국민·의료계·정부가 참여해 '의료개혁 4대 과제' 등을 논의하는 사회적 협의체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료개혁특위)가 25일 출범했다.

보건복지부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 9층 대회의실에서 노연홍 의료개혁특위 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1차 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 열렸다고 밝혔다. 대한의사협회, 대한전공의협의회 등 의사단체들은 예고한 대로 불참했다.

지난 2월 1일 대통령이 주재한 민생 토론회에서 ▲의료인력 확충 ▲지역의료 강화 ▲의료사

고 안전망 구축 ▲보상체계 공정성 제고 등 '의료개혁 4대 과제'와 함께 특위 출범을 발표한 지 약 3개월 만이다. 특위는 노연홍 한국제약바이오협회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여기에 10개 공급자 단체와 5개 수요자 단체에서 추천한 15명, 전문가 5명으로 이뤄진 20명의 민간위원과 6개 중앙부처 기관장이 위원으로 참여한다. 임기는 1년이다.

특위가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전공의협의회 등의 의사단체들이 보이콧한 상태에서 발족한 만큼 논의 결과가 향후 의정 갈등의 새로운 갈등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5·18 기념행사 올해는 하나 되어 치르나 ▶6면

복스 - '맥주 이야기' '시문사담' ▶14·15면

KIA 정해영 100 S·김도영 '30-30' 도전 ▶18면

Passion [열정], Vision [꿈], Truth [진리] 로 충만한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 로 오십시오!!
입학문의 학부 062)605-1114 대학원 605-1115



당신이 찾던 럭셔리 미래

The new EQS SUV



Mercedes-Benz



메르세데스-벤츠 공식 딜러 신성자동차

광주 전시장 062)226-0001 & 화정 서비스센터 062)376-2556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대로 1041(화정동)
광주 수완 전시장 062)716-5001 & 광주 임흥 중고차 전시장 062)945-0007 & 수원 서비스센터 BP 062)942-7200/GR 062)961-0090
광주광역시 광산구 임방울대로 565(도선동)
정부 공인 표준 연비 및 등급

EQS 450 4MATIC SUV (5인승) 복합 에너지 소비효율(전기/km/kWh) : 3.6(도상: 3.7, 고속도로: 3.5) 1회 충전거리(km) : 459, 공차중량(kg) : 2850, 배터리 용량(kWh) : 107.1
EQS 580 4MATIC SUV (5인승) 복합 에너지 소비효율(전기/km/kWh) : 3.5(도상: 3.6, 고속도로: 3.4) 1회 충전거리(km) : 447, 공차중량(kg) : 2890, 배터리 용량(kWh) : 107.1
* 본 연비는 표준모드에 의한 연비로서 도로 상태, 운전 방법, 차량 적재 및 정비 상태 등에 따라 실주행 연비와 차이가 있습니다.
* 상기 제품이미지는 국내 사양과 다를 수 있습니다.